

지금까지 줄거리

1. 마태복음의 구성

- 5 대 설교문=> 마태복음의 구조 (5-7 장; 10 장; 13 장; 18 장; 24-25 장)
- 왜? 정체성 형성
 - 모세와 예수=> 산상수훈 (마가=>회당에서 가르침. 마태복음에서 회당은 몸쓸 곳=>4:23//9:35: "저회 회당"), 무엇보다 예수의 성공적인 데뷔(debut)는 회당이 아닌 산에서
 - 엘리야와 요한=> 마 17:13 (cf. 3:14)

2. 천국(18:1, 3, 4, 23)=> 교회 이야기=> 우리들 이야기

- 질서, 치리의 필요성 => '교회'(ἐκκλησία); 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에만 등장 (16:18; 18:17*2)
- '개종자'(προσήλυτος, proselyte): 마 23:15; 행 2:11; 6:5; 13:43
-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대안/대항 공동체.
 - 무엇에 대비되는, 대항하는 공동체인가? (현 지배체제/지배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)
 - 하나님 나라/예수 복음의 내용=> C.C.C (Challenge, Care, Create)
 - a. *Challenge/Confront the dominant imperial ideology//theology//gospel* (知)=> 깨달음, 자성의 영성
 - b. *Care the sick (poor and oppressed)* (情)=> 병자 (=> outer manifestation of the corrupted society)
 - c. *Create the alternative community* (意) => operating system="influence" not enforcement (제국, 군사)=> political, economic (tax), military, religious (justification). 마 4:17-25

A. 누가 크냐?

- 발단: "그 때에 제자들이..." => 예수가 베드로 성전세를 내 줌 (마 17:24-2) 베드로만? 시기, 질투
 - 마 16: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**네가** 땅에서 무엇이든지($\delta\ \epsilon\acute{\alpha}\nu$)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
 - 마 19:18 무엇이든지($\delta\sigma\alpha\ \epsilon\acute{\alpha}\nu$) **너희가**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=> Rabbinic use: "declaring what is or is not permitted"
- 누가 크냐/위대하냐($\mu\epsilon\acute{\iota}\zeta\omega\nu$ <= $\mu\acute{\epsilon}\gamma\alpha\varsigma$, $\mu\epsilon\gamma\acute{\alpha}\lambda\eta$, $\mu\acute{\epsilon}\gamma\alpha$ 비교급)
 -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($\mu\iota\kappa\rho\acute{\upsilon}\tau\epsilon\rho\varsigma$)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(11:11) => 소자(18:10)//제자(10:42; 25:40, 45)
 - 섬기는 자가 큰 자다(23:11) => 권세를 부리는 자 vs. 섬기는 자 (20:25-28)
 - 마 18:3 "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한" ($\epsilon\acute{\alpha}\nu\ \mu\grave{\eta}\dots$) => 정체성(identity)과 생활규범(life formation) => 지배체제/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함.
- 거침돌(스캔들)
 - 남(형제=> 공동체 일원)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아야
 - "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(스캔들)..." => 논리/논쟁이 초점.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 아님.

B. 죄와 용서에 대해

1. 일반 질문. 형제(fellow disciple, 5:22-24, 47; 7:3-5)가 죄를 범하면...
 - 1 단계: 당사자끼리 => 왜? (상대를 존중하기 위함)
 - 2 단계: 두 세사람의 가까운 증인(신 19:15)=> 역시 상대를 보호할 목적 (개인의 힘/권력 제어장치)
 - 3 단계: 교회=> 더 많은 증인. 초점은 내 맘대로/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
2. 베드로 질문. 형제가 죄를 범하면...70 번에 7 번이라도 용서.
 - I am not saying to you up to seven time, but seventy times seven. (seventy-seven times=> 창 4:24)
 - 왜 다른가? 베드로가 중심이라 치고, 다스리는 자는 끝없이 용서해 주어야...
3. 질문: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죄=> 성령을 훼방함(12:31-32) =>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. 곧 세상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립. 여기에는 타협이 없다. (왜? 정체성 문제)

생각해 보기

1. 내게 죄를 진 형제를 용서해 준 적이 있나?
2.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나?